

먼저 손을 내밀어 봐

글_ 전경자 이모는 누구나 차별 없이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동네 만
들기에 관심이 많아.

그림_ 소경섭 삼촌



봄날을 맞아 교실 밖 풍경은 정말 화사하고 따뜻하지? 다들 새 학년, 새 반에 잘 적응해서 신나게 학교에 다니고 있지? 새로 만난 친구들과는 친해졌어? 선생님은 어떤 분이셔? 선생님의 공부 방식에 이제 좀 익숙해졌고? 동무들의 새 학기 생활이 이모는 참 많이 궁금해. 특히 새 학교 새 학급으로 전학 온 친구에게 더 관심이 가. 왜냐고? 우선 <전학 온 아이>라는 제목의 동시를 함께 읽고 이야기해 보자.


전학 온 아이

전학 온 첫날
운동장에 앉아
낯선 아이들
노는 것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나도 한 몫
들까 말까
어쩐지 멧쩍어
머리만 금적금적
옛 학교 친구가 그립다.

(김철민, 별과 등대와 꽃편지, 1998)

다고. 전학 스트레스로 생긴 몸과 마음의 증상은 어떤 것일까? 매사에 자신감이 없어지고, 하고 싶은 일이 없고, 우울한 기분이 들 수 있다. 수업시간에 자꾸 멍하니 있게 되기도 하고. 그러자니 시험을 보려면 지나치게 걱정이 되고 불안이 커지겠지. 친구들이나 선생님 앞에서 실수할까 봐 두렵고, 점점 피하고 싶어진다는 거야. 이런 불안이나 우울감이 머리가 아프거나 배가 아픈 증상으로 나타날 수도 있고. 게다가 본인의 기분이나 느낌을 표현하기 힘들어서 부정적인 행동을 하기 쉽대. 부모님이나 가까운 사람들에게 쉽게 짜증이나 화를 내게 된다는 거지. 그러다가 야단을 맞거나 싸우기도 하고, 상황은 점점 더 나빠지는 거지. 이런 상태가 계속되면 결국 학교에 가기 싫어질 수 있어. 참 안타까운 일이지. 다행히 병원에 다니면서 치료를 받으면 증상이 좋아질 수 있대. 그리고 그 친구가 다시 학교로 돌아와 생활할 때는 학교 친구와 선생님이 특별한 배려와 관심을 보여서 잘 적응하도록 함께 도와야 할 거야.

그래서 다시 동무들에게 말하고 싶어. 지난 3월 새 학기를 맞아 지금까지 내가 한 번도 이야기를 나눠보지 않은 친구는 없는지 한번 교실을 둘러보자. 그리고 먼저 다가가서 손을 내밀어 봐. 함께 학교생활을 하게 되어 반갑다고 환영의 마음을 표현해 보자. 혹시 새로 전학 온 친구가 있으면 더욱 따뜻하게 인사 나누고, 함께 놀자며 손 붙잡고 운동장으로 나가자. 신나게 한바탕 뛰어놓고 맘껏 소리 내어 웃으면서 스트레스를 봄바람에 실어 멀리 보내버리자고. 

이 시를 읽은 느낌이 어때? 친구의 외로움이 느껴지고, 기운 없이 어깨가 축 처진 아이가 눈앞에 서 있는 듯하니? 장소도 낯설고, 마음을 나눌 친구도 없어서 학교에 오는 것이 전처럼 신나고 즐겁지 않으니 자꾸 옛 학교 생각이 날 거야. 이럴 때 운동장에서 놀던 친구 중 한 명이 먼저 다가와 손 내밀며 함께 놀자고 하면 얼마나 반갑고 좋을까? 금방 얼굴에 웃음 띠며 달려가 함께 뛰어놀겠지? 신나게 놀다 보면 어느덧 서로 호감을 느끼게 되고, 궁금한 것을 이야기하게 될 거야. 새로 온 친구에게 학교와 동네 이곳저곳을 안내해 주고 유익한 정보를 알려줄 수도 있을 거고. 동무들의 관심과 도움 덕에 전학 온 친구는 학교에 이미 잘 적응했을지도 모르겠구나.

그런데, 혹시라도 동무들처럼 먼저 손 내밀고 다가가는 친구들이 없으면 전학 온 친구의 학교생활은 어떨까? 소아청소년과 의사들이 그러더라고. ‘이사’ 또는 ‘전학’은 큰 스트레스 사건인데, 이것 잘 이겨내지 못하고 몸과 마음에 병이 생겨 찾아오는 초등학생들이 있